우암학원 창학 70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기업이 원하던 자리 지식산업센터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분양중 062)372-6666 시공 삼일건설

대표전화 (062)222-8111 제21461호 1판 | 1952년 4월 20일 창사 69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 음력 1월 27일 | kwangju.co.kr

전셋집도 못구하는데 공직자 땅투기…서민 '허탈'

본격 이사철…광주 아파트 전세가 1년 새 10% 치솟고 매물까지 실종
LH 직원들 신도시 땅 투기에 광주 산정동 공공택지도 투기 의혹 '분통'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전셋값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사갈 곳을 찾아 하루종일 돌아다녔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구요. 누구는 개발 정보로 손쉽게 돈 벌고 집 사는 모습 보니 정말 자괴감이 들어요. 법 지키며 악착같이 살아온 게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 이사철을 맞아 옮겨갈 집을 구하러 광주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던 세입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다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일대 신규공공택지 투기 의혹에 허탈함과 함께 분노의 심경을 드러냈다.

◇전셋값 치솟는데 머물 수도, 나갈 데도 없어= 본격적 봄 이사철, 광주지역 부동산 중개소를 찾은 세입자들은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마땅한 집을 찾을 수 없다"며 하소연했다. 특히 2년 전 시세 수준에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가 턱없이 오른 가격에 당장 '전세난민'이 될 처지에 놓였다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월만 해도 2억 7000만원에 구할 수 있었던 효천 2지구 아파트(113.1205㎡) 전셋값은 올 들어 4억원을 찍었다. 이런 상황에서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5% 상한선' 규정을 적용받으면 시세가 올랐더라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말도 들렸다.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테니 비워달라"고 해 부랴부랴 집을 보러 다니는데 매물이 없다는 것이다. 전셋값을 대출받아 원리금 상환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어서 집주인 요구대로 더 올려 줄 형편도 안된다고 했다. 화정동 힐스테이트 전셋값도 1년 전보다 1억 이상 뛰었다. 통계로도 확인된다.

9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Liiv ON)에 따르면 올 2월 광주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2억 1493만원으로 전년도(1억9522만원)에 견줘 10.09% 뛰었다. 매매가도 비슷하다. 평균 매매가격은 3억 244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억 8010만원에 비해 7.97%가 올랐다.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다보니 매물도 실종됐다.

전세 재계약이 임박한 세입자들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그 돈으로 비슷한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당장,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지구로 발표한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건너편 산정동 일대는 전세 매물을 찾아볼 수 없다. 신혼부부를 비롯한 젊은층이 새집을 찾겠다며 돌아다니는 광산구 선운지구도 집 구하려는 사람들만 북적인다. 선운지구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집 구한다는 문의전화만 하루 평균 20통 오고 직접 찾아오는 발길도 끊이질 않는데 보여줄 집이 없다"며 되돌려보내고 있다.

그렇다고 새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해도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광주의 경우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돼 금융권 대출 규제를 받는 바람에 주택담보대출을 집값 만큼 받기가 쉽지 않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머무르기도, 다른 집을 구할 수도, 아예 새 집을 살 수도 없는 세입자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러다보니 정부 말만 믿었다가 손해를 봤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절망감만 가득, 믿은 내가 바보…박탈감 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불거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은 이들의 허탈감과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특히 LH 전·현직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다가 정부가 발표한 광주지역 신규 공공택지 지구에 대한 투기 의혹을 접하면서 시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광주지역 인터넷 카페와 언론 보도에 달린 댓글 등에는 내집 마련에 대한 어려움과 고충을 토로하는 글이 쇄도 하고 있다. 한 카페 회원은 "내 집 마련, 이렇게 힘든 것 이었나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라며 이사철, 집 구하기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글을 올렸고, 또 다른 회원은 "광주에서 집사는 것 포기하고 나주 혁신도시로 간다"고 적었다. 30대 직장인 김모(30)씨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광주지역 집값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를 믿고 기다렸다 결국 내집 마련도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투기 소식에 대한 실망감도 고스란히 드러냈다. 시민들은 광주시의 전수 조사 소식과 관련, "집값 두배 오른 이유가 다 있었네"라며 "징계가 아니라 해임시키고 10배 보상해야 한다"며 강도높은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유리창 너머로 안부 인사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접촉·비접촉 면회가 재개된 9일. 광주 북구 동행재활요양병원 면회실에서 부산, 제주 등 각지에서 온 가족들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입원 환자를 면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부동산 공급 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

문 대통령 "투기 발본색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은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사태가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 궁극적인 목표인 집값 안정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우려인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발본색원하라고 했고 조사대상을 청와대 직원까지 확대하라고도 지시했다"며 "이런 지시와 강도 높은 조치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공급대책이 원활하게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비서관급 이상 참모와 그 가족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가 금주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체 직원 중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한 투기 의혹 조사의 1차 결과를 이번 주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들의 해당 지역 토지 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조사의 진척 상황에 맞춰 행정관급 이하 직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투기 여부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원격수업 … 유튜브·웹툰에 빠진 학생들 ▶6면

KIA 오선우 타격에 불 붙었다 ▶18면

우리동네 미술 - 오래된 풍경 예술이 되다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이낙연 대표 퇴임 … 본격 대선 행보 나섰다

재보선 승리·지지율 회복에 중점
민주당, 5월까지 김태년 대행체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섰다. 당 대표로서 정책과 현안 발표에 제한이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당 지휘봉을 내려 놓은 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재보선 승리를 이끌고 지지율 회복에도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7 재보선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주고 전국 시도당 위원장-사무처장 연석회의와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 신복지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연석회의에서 이 대표는 "대표로서 여러분을 모시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다. 우리가 취약한 곳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풀뿌리가 탄탄하게 내리고 있는 그런 전국정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선 공천장 수여식에서 이 대표는 "당으로서도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이나 그 이전부터 교육 불평등에 놓이고 그것이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준다면 너무 가혹하다"며 "그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29일 당 대표에 선출돼 192일간 민주당을 이끌어온 이 대표의 이날 사퇴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도부 임기는 2년이지만, 민주당 당헌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사퇴 이후에도 상임선대위원장, 가덕도 특위 위원장을 맡아 당 전면에 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김태년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체제로 가동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weeks
고함량 고강도 레티놀이 눈가 및 팔자 주름 등을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 퍼 레 티 놀
단 2주 만에 주름 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만 40~59세 성인 여성 대상 2019.09.16~10.17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